

씨름, 유네스코 문화유산 되나?

첫 남북 공동등재 유력
외교부 "위원회에서
공동 등재 최종 승인키로"

남북이 등재를 신청한 전통놀이 '씨름'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가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

남북이 동일한 유산을 유네스코 무형 유산에 등재한 적은 있지만 공동등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26일 기자들과 만나 "남과 북은 26일(현지시간) 모리셔스에서 개최된 제13차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 정부간 위원회에서 씨름을 남북 공동 유산으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등재하는 것에 합의했다"며 "위원회에서 씨름의 남북공동 등재 최종 승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번 등재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오를레 아를레 유네스코 사무총장 접견 계기에 씨름의 남북 공동등재 논의가 있었다"면서 "후속대책 차원에서 아를레 사무총장이 평양에 유네스코 특사를 파견해 북측 요청에 화답을 해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우리나라는 2010년 3월 씨름 등재신청서를 제출했고, 북한은 2016년 씨름의 등재신청서를 냈으나, 그해 열린 11차 유네스코 무형



남북이 등재를 신청한 전통놀이 '씨름'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가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 남북이 동일한 유산을 유네스코 무형 유산에 등재한 적은 있지만 공동등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산위원회에서 등재 보류 판정을 받았다.

현재 우리나라는 강강술래, 제주 해녀문화, 종묘 제례 및 종묘 제례악, 판소리 등 19종목의 인류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씨름'이 등재되면 총 20종목의 인류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하게 된다. 북한에서는 아리랑과 김치 만들기에 이어 세번째 등재유산이 된다. /뉴시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 쏟아낼 것"

이동국 전북현대 재계약

전북 현대 모터스 축구단의 살아있는 전설 '라이언 킹' 이동국이 2019 시즌에도 전주성 그라운드를 누빈다.

전북현대는 26일 이동국과 1년 재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2009년 전북에 입단한 이동국은 11년째 전북의 녹색 유니폼을 입고 K리그와 전북의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게 됐다.

전북은 내년 시즌에도 이동국의 존재가 필요하며 팀의 레전드 선수에 대한 존중의 의미를 더하기 위해 후임감독 선임에 앞서 재계약을 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2019시즌 새롭게 팀을 지휘하게 될 신임 감독에게도 이동국 선수의 가치를 잘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이동국은 올 시즌 팀 내 최다 득점으로 전북의 6번째 K리그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으며, 지난 제주전에서는 502경기를 출전해 K리그 통산 필드플레이어 최다 출전 기록을 경신했다.

이동국은 "남은 선수로서의 활동을 전북에서 계속할 수 있게 돼 정말 기쁘고 나를 인정해준 구단에 감사하다"며 "전북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쏟아내고 팀의 위상을 더욱 높이겠다"고 말했다.

백승권 단장은 "이동국은 전북에서 선수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닌 선수다. 그 가치를 인정하고 보답을 하는 것이 구단의 역할이다"며 "이동국 선수가 전북의 이름으로 더욱 좋은 활약을 할 수 있도록 응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뉴시스



프로야구 은퇴선수협 추천

'올 최고 선수' 김재환·강백호

(사)한국프로야구 은퇴선수협회(회장 이순철)가 2018년 최고의 선수로 김재환(두산 베어스)을 선정했다.

한은회는 오는 12월 6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양재동 L-타워 7층 그랜드 홀에서 제6회 한국프로야구 은퇴선수의 날 행사를 개최하며, 2018 최고의 선수상으로 김재환(두산 베어스)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최고의 선수상'에 선정된 김재환은 올해 44 홈런을 날렸다. 김재환은 타이론 우즈(OB) 이후 20년 만에 잠실구장을 홈구장으로 쓰는 홈런왕으로 이름을 올리며 팀을 정규리그 우승으로 이끄는 등 리그 최고의 타자로 자리매김하며 은퇴선수들의 선택을 받았다.

이와 함께 '최고의 투수상'은 35세이브를 올리며 11년 만에 한화의 포스트시즌 진출을 이끈 정우람(한화 이글스)이, '최고의 타자상'은 2년 만에 KBO리그로 복귀해 43개의 홈런, 1.175의 OPS를 기록한 박병호(넥센 히어로즈)가 선정됐다. 고졸 투기로 무려 29개의 홈런을 기록한 강백호(KT 위즈)가 '최고의 신인상' 수상자로 뽑혔다. /뉴시스



푸른나무청예단, 28일 '링크 연예인 골프단' 창단

푸른나무청예단(이사장 문용린)은 28일 '링크 연예인 골프단' 창단한다.

방승인 박미선이 단장을 맡고, 개그맨 강성범·고명환·김성은·김수용·김장열·박준형·박휘순·변기수·이봉원·정진수·지상렬·홍기훈, 아나운서 김주희·김환·이성배, 방송인 김지혜·김한석·성대현, 배우 김동현·이광기·이찬·정가은, 야구선수 마해영·박명환·이동현 가수 김정민·김혜연·한서경(이상 가나다순) 등 스타가 참여한다.

골프단은 앞으로 매년 2~3회씩 자신 대회를 개최해 수익금을 조성하고, 소외된 청소년들과 따뜻한 사랑을 함께 나눔 예정이다.

특히 소속 스타들은 단순한 후원금 전달에 그치지 않고 크리에이터로서 꿈과 잠재력을 가진 청소년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재능 기

부에 나서는 등 실질적인 도움의 손길을 내밀 계획이다.

골프단은 이날 경기 안성시 안성H CC에서 창단식을 겸한 '제1회 골프 대회'를 개최한다. 벅스토어나인, 엘아이엔케이, 푸른나무청예단이 주최 및 주관한다.

골프단 소속 스타가 대거 참여하고, 소성렬 전자신문 대표 등 일반 후원자들도 동참한다.

스타 크리에이터인 아프리카 tv BI 김소린이 함께해 현장 라이브 생중계를 진행한다. 청예단 심광희 청소년이 푸른나무청예단 관련 유튜브 홍보영상을 제작할 예정이다.

김인기 링크 연예인 골프단 대표는 "셀러 브리티들이 나눔과 사회 공헌에 한발 더 나아가기 위해 골프단을 창단한다"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청했다. /뉴시스

BUAN MARKET 부안상설시장

2018 설송어축제

2018. 12.14(금) ~ 16(일)
부안상설시장 야외분수대 일원

개막식·와글와글 시장가요제(JTV)
2018. 12.14(금) 14:00

경품추첨, 이벤트, 문화공연, 체험, 먹거리 장터, 특산품 판매

문의|부안군 미래창조과 T.063-580-4230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부안상설시장 지역선도시장 육성사업단 T. 063-717-1325

| 주최 | 중소기업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전라북도 | 부안군 | 주관 |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 부안상설시장상인회